

〈특집: 동유라시아 물품의 역동성: 유통과 확산〉

## 『알탄 칸傳』에 나타난 16세기 우익 몽골에서의 물품 유통

최 주 봉 \*

### 〈목차〉

- I. 머리말
- II. 대외 원정과 노획물
- III. 사신 파견과 교역품
- IV. 불교 의례와 공양물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6세기 우익 몽골에서 유통되었던 물품을 『알탄 칸傳』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6세기 투메드 몽골의 수장이었던 알탄 칸(1508~1582)의 행적은 대외 원정, 사신 파견, 불교 귀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알탄은 일찍부터 형제들과 함께 우량칸·위구르·오이라트·明을 상대로 활발한 대외 원정을 전개하였다. 1542년 형인 메르겐 지능이 사망한 뒤로도 알탄은 대외 원정을 주도하고, 전쟁에서 획득한 포로와 전리품을 분배함으로써 우익 몽골의 실력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정복지에서 공물과 세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越境 한인들을 포섭하여 투메드 평원에 농경을 시행하고 후호호트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세력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알탄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天山 남부의 모굴 칸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칭기스 일족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아라비아산 말과 금강석을 우익 몽골로 들여왔다. 알타이 산맥 이북의 오이라드와는 통혼을 통해 칭기스 칸때 맺었던 사돈 관계를 회복하였다. 한편, 명의 북변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우익 몽골은 1571년 명과 '隆慶和議'를 맺은 뒤로 마시에서 말과 은 또는 비단을 교환할 수 있었다.

1571년 알탄은 아싱 라마와의 만남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하고 중앙티베트에 사절을 보내 겐룩파의 고승 쇠남 가초를 초청하였다. 1578년 알탄은 참치알에서 쇠남 가초와 만나 쿠빌라이와 팍빠의 선례를 본받아 施主-應供僧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때 알탄은 명에서 얻은 차와 비단, 금·은을 비롯한 각종 귀금속뿐 아니라 모굴 칸국을 통해 들어온 아라비아산 말 등을 티베트 승려에게 공양물로 바쳤다. 1571년 알탄이 명과 화약을 맺고 불교에 귀의한 이래로 명과 모굴 칸국에서 들어온 교역품이 우익 몽골을 거쳐 보시의 형태로 티베트에 유입되었다. 결국 16세기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 유통 과정에서 우익 몽골이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알탄 칸, 우익 몽골, 후호호트, 용경화의, 마시, 쇠남 가초, 공양

## I. 머리말

1368년 토곤 테무르가 大都를 떠나 몽골고원으로 귀환한 뒤로 칭기스 칸의 후손들은 오이라드의 발호와 그 뒤를 이은 위구르 출신 무슬림 세력의 대두로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하였다. 칭기스 칸 가문이 쏠몽골에 대

한 지배권을 회복하는 것은 바투 몽케 다얀 칸이 달란 테리군 전투에서 우익 세 만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1510년에 이르러서였다. 다얀 칸은 우익 세 만호를 제압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분봉함으로써 이른바 ‘여섯 만호 체제’를 수립하였으나, 그의 사후 좌·우익은 독자적인 정치체로 분화해 갔다. 이러한 와중에 16세기 우익 몽골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투메드 몽골의 수장이었던 알탄 칸(1508~1582)이다.

알탄은 일찍부터 활발한 대외 원정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1612년 瞿九思(1545~1615)가 찬술한 『萬曆武功錄』 「俺答列傳」을 비롯한 明 측의 기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다. 게다가 알탄은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중앙티베트의 겐룩파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만큼 제5대 달라이 라마(1617~1682)가 1646년에 저술한 『쇠남 가초傳』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양측 기록 모두 알탄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16세기 말 몽골에서 티베트불교가 부흥한 이래로 17세기에 들어서면 서부터 佛經의 몽골어 번역과 더불어 몽골문 연대기의 편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알탄이 속한 우익 몽골의 입장을 대변하는 몽골문 연대기로는 오르도스 출신의 사강 세첸 흥타이지(1604~?)가 1662년에 지은 『몽골원류』가 가장 유명하다. 하지만 알탄 칸과 그 후손들의 일대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몽골문 연대기는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그 존재가 알려진 『알탄 칸傳』<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알탄 칸전』의 저자와 저작 연

1) 『알탄 칸傳』의 표제는 “보석의 영롱함’이라 이름하는 경전이라”(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uşıba)지만, 본문의 마지막 행 “轉輪聖王 알탄 칸의 일생을 깨우칠 ‘보석 거울’이라 하는 略傳”(čakravarti altan qayan-u törül-i uqayulqui erdeni toli neretü quriyangrui čadig)이나, 跋文의 가장 마지막 구절 “轉輪聖王 알탄 칸의 이야기”(čakravarti altan qayan-u turuǰi)를 따서 부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알탄 칸傳』으로 약칭하도록 하겠다.

2) 『알탄 칸전』의 필사본은 1958년 후호호트의 蒙古語文歷史研究所에서 근무하던

대는 모두 미상이지만,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주룽가가 1607년 봄으로 추정  
한 이래 다른 연구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sup>3)</sup> 결국 『알탄 칸전』은 성립  
연대가 불분명한 『十善法白史』를 제외하면, 『몽골비사』 이후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몽골문 연대기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알탄 칸전』은 1984년 주룽가가 校注本을 발간한 이래로 현재까지 일  
본어·중국어·독일어·영어·현대 몽골어로 번역본이 출간되었다.<sup>5)</sup> 이에

---

메르겐 바투르라는 학자가 내몽골자치구 西ウ중친旗 王府에서 입수한 것이 지금으  
로서는 유일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이 자료는 내몽골자치구 사회과학원 도서  
관에 소장되어 있다(등록 번호 22.912 48:1). 吉田順一 共譯注, 『『アルタン=ハー  
ン伝』 譯注』, 東京: 風間書房, 1998, iii쪽.

- 3) 주룽가는 『알탄 칸전』 본문에서 언급되는 가장 마지막 해가 붉은 양해(丁未年,  
1607)임에도 같은 해 夏四月 20일(5월 15일)에 있었던 알탄의 손자이자 제3대 順  
義王인 나무타이 세첸 칸(재위 1587~1607)의 사망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알탄 칸전』이 1607년 봄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jürüŋg  
γ-a 校注,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ušiba*, 北京: 民族出版社, 1984, 3쪽.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음력 월은 문자로 표기하고, 양력(1582년 10월 4일을 기준으  
로 이전은 율리우스曆, 이후는 그레고리우스曆) 월은 숫자로 표기하여 양자를 구분  
하고자 한다.
- 4) 『十善法白史』 *Arban buyan-tu nom-un čayan teüke*의 成書 시기에 대해서  
는 쿠빌라이 재위기를 비롯한 元代로 보는 견해와 16세기 말 후투타이 세첸 홍타이  
지가 저술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후자가 더 유력해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井上治, 「モンゴルにおける史書の受容と継承について: 『白い歴史』と『蒙古源  
流』を事例に」, 『モンゴル史研究: 現状と展望』, 早稲田大學モンゴル研究所 編,  
吉田順一 監修, 東京: 明石書店, 2011, 237-246쪽 참조.
- 5) 『알탄 칸전』 역주본을 출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jürüŋg-γ-a 校注,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ušiba*, 1984; 森川哲雄, 『『アルタン・ハーン伝』  
の研究』, [福岡]: [九州大学], 1987; 珠榮嘎(jürüŋg-γ-a) 譯注, 『阿勒坦汗傳』, 呼  
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伝』 訳注』,  
1998; Karénina Kollmar-Paulenz,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Die Biog  
raphie des Altan qayan der Tümed-Mongol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religionspolit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Mongolei und Tibet  
im ausgehenden 16. Jahrhundert*, Wiesbaden: Harrassowitz, 2001;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따라 1980년대 이후로 알탄 칸에 관한 연구는 대개 『알탄 칸전』을 필수 자료로 활용하였다. 『알탄 칸전』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주로 명이나 티베트 측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몽골 내부의 정치 변동 또는 對明 관계를 분석하거나, 알탄 칸과 최남 가초(1543~1588)의 회견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sup>6)</sup>

최근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기존의 인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물품이 중심이 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편중되어 있고, 동유라시아로 시야를 확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기가 몽골 제국 시대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sup>8)</sup> 16세기 몽골은 몽골 제국에서 淸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다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우익 몽골은 알탄 칸의 영

---

*Sixteenth Century*, Leiden·Boston: Brill, 2003; Д. Заябаатар, *Чакравардн Алтан Хааны Тууж*,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2006.

- 6) 1980년대 이후 『알탄 칸전』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서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薄音湖, 『明代蒙古史論』, 臺北: 蒙藏委員會, 1998; 楊紹猷, 『俺答汗評傳』,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井上治, 『ホトクタイ=セチェン=ホンタイジ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2002.
- 7)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엮음, 『동유라시아 물품 교류와 지역』, 경인문화사, 2022.
- 8)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몽골 제국 시기 물품 관련 연구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장구, 「대몽골국 성립 전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2022; 서은미, 「元代茶文化의 특징」, 『東洋史學研究』 158, 2022; 설배환, 「13~14세기 카안의 부역과 몽골 風味의 지속과 변화」, 『몽골학』 49, 2017; 설배환,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경제·정치 네트워크」,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조원, 「『飲膳正要』와 大元제국 음식문화의 동아시아 전파」, 『歷史學報』 233, 2017; 조원, 「원제국 외래 香藥과 카안의 賞賜: 南海海上 생산 香藥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59, 2022; 최소영,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와 그 운송 문제 고찰」,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도 아래 甘肅·青海 지역의 위구르를 평정하고 명·티베트·모굴 칸국과 교류하며 동유라시아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508년 알탄이 태어나서 1582년 사망하기까지 『알탄 칸전』에 나오는 물품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16세기 우익 몽골에서의 물품 유통의 변화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알탄 칸전』을 인용할 때는 기존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풍부한 주석을 달아 놓은 요시다 외의 日譯本을 참고하되, 직접 인용한 부분은 필자가 원문과 대조하여 로마자로 轉寫하고 한국어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알탄 칸전』은 기본적으로 네 행이 두운을 맞추어 하나의 연을 이루는 絶句로 구성된 운문 형식의 서사시이다. 역주자마다 연을 세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요시다 외의 역주본에 따라 연을 표기하도록 하겠다.<sup>9)</sup>

본문은 『알탄 칸전』에 기록된 알탄의 행적을 대략적인 연대순으로 대외 원정, 사신 파견, 불교 의례로 나누어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각 장에서 탐색할 물품을 노획물, 교역품, 공양물로 분류하였다. 『알탄 칸전』에 품목이나 수량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력무공록』, 『쇠남 가초전』을 비롯한 명과 티베트 측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그 품목과 유통 규모를 추정해 보겠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16세기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질문명을 당시 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였던 우익 몽골을 중심에 두고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聯 분절은 다얀 칸과 바르스 볼라드의 자식들을 열거한 앞부분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珠榮嘎, 森川哲雄, Kollmar-Paulenz의 연 분절은 거의 일치하며, 본 논문에서 따르는 吉田順一 他的 연 序數에서 3을 빼면 동일한 연을 찾을 수 있다. 상세한 연 분절 대조표는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伝』譯注』, 551~556 참조.

## II. 대외 원정과 노획물

알탄은 몽골의 중시조로 평가받는 다얀 칸의 손자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바르수 볼라드는 다얀 칸의 셋째 아들로 우익 세 만호를 통할하는 지농(jinong)<sup>10)</sup>에 임명되었는데, 다얀 칸 사후 어린 조카를 제치고 칸으로 즉위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sup>11)</sup> 『알탄 칸전』 제27연에 따르면 알탄은 “불-신성한 암토끼해(丁卯年) 십이월 30일 소날”에 바르수 볼라드와 보둔 카툼 사이에서 아들딸 쌍둥이로 탄생했다고 한다.<sup>12)</sup> 알탄의 생년월일과 관련하여 모리카와는 丁卯年(1507/8) 십이월은 작은달로 30일이 없으며 20일이 己丑日로 소날에 해당하므로 30일은 20일의 오기라고 지적하였다.<sup>13)</sup> 따라서 알탄의 생년월일은 정묘년 십이월 20일이며 이것을 양력(율리우스曆)으로 환산하면 1508년 1월 22일에 해당한다.

이때 알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誕生祝宴(maliyarud-un qurim)’이 벌어졌는데, 『알탄 칸전』에는 연회의 절차라든가 거기에 사용된 물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1594년 蕭大亨(1532~1612)이 저술한 『北虜風俗』의 「生育」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sup>14)</sup> “몽골인은

10) 지농(jinong) 칭호는 至元 29년(1292) 쿠빌라이가 皇孫 카말라(甘麻刺)를 ‘晉王’에 봉하여 칭기스 칸의 四大 오르도와 군마, 몽골 국토를 統領하게 한 데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Gombojab Hangin “The Mongolian Titles jinong and Sigej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00, No. 3, 1980, pp. 259~260.

11) 바르수 볼라드의 생몰년 및 그의 칸位 ‘찬탈’ 문제에 관해서는 森川哲雄, 「Barsu bolad의事績」, 『歴史學·地理學年報』 12, 福岡, 1988 참조.

1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伝』譯注』, 563쪽 [fol. 4a18-23].

13) 森川哲雄, 『『アルタン=ハーン伝』の研究』, 114~115쪽, 주24-②.

14) 蕭大亨의 생애와 『北虜風俗』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조원, 「明人の 시선에서 본 16세기 漠南몽골 사회의 변화: <北虜風俗>을 중심으로」, 『몽골학』 37, 2014, 31~35쪽 참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우리 중국인이 보살피는 것과 같지 않다. 아이를 낳으면 바로 가죽이나 펠트로 감싸고 사흘이 지난 뒤 씻긴다. 씻긴 다음에도 전처럼 감싼다. 이날 소를 잡아 술자리를 벌이고, 친척과 이웃을 불러 함께 모여 술을 마시는데, 이를 ‘米喇兀’이라고 한다.<sup>15)</sup> 여기서 米喇兀은 몽골어 maliyarud~milayud를 음역한 것으로, 제사나 축하 의식에서 버터나 말젖을 발라서 축복을 나타내던 몽골인의 풍속을 가리킨다.<sup>16)</sup> 이처럼 알탄이 태어나고 사흘 뒤에 알탄의 몸을 씻기고 가죽의 젖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치른 다음, 알탄의 일가친척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며 모두 함께 알탄의 탄생을 축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르수 볼라드 사후 지능 칭호는 만아들인 군 빌릭(1506~1542)이 계승하고 칭기스 칸의 靈廟인 八白室이 있는 오르도스 만호를 영유하였다. 둘째 아들 알탄은 우익 세 만호 가운데 투메드 만호를 물려받았으며, 동생인 바이스칼은 용시예부 만호의 유력집단인 하라친을 지배하였다. 알탄은 17세인 1524년부터 형제들과 함께 우익 세 만호를 통솔하고 외적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여 64세인 1571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을 만큼 정력적으로 대외 원정을 전개하였다. 『알탄 칸전』 제129연은 1571년까지 알탄이 외적을 상대로 출정하여 거둔 승전 횟수가 마흔다섯 차례에 달하였다고 전한다.<sup>17)</sup>

알탄이 우량칸을 상대로 원정에 나선 1524년부터 明과 이른바 ‘隆慶和議’가 성립하는 1571년 전까지 『알탄 칸전』에 나오는 대외 원정 기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5) 蕭大亨, 『北虜風俗』, 「生育」(薄音湖, 王雄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2,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238쪽), “夷人產育男女, 不似我中國護持. 產時卽裹以皮, 或以氈, 越三日方洗. 洗畢, 仍裹之如前. 是日椎牛置酒, 召親戚鄰里會飲, 名曰米喇兀.”

16) 珠榮嘎, 『阿勒坦汗傳』, 23쪽, 주24-④.

17)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伝』譯注』, 142쪽.



〈표 1〉 『알탄 칸傳』에 나오는 알탄의 대외 원정 기사

연도		교전국	지명 [比定]	출처
동물曆	西曆			
원숭이해	1524	우량칸	발지	39~40연
흰 토끼해	1531	우량칸	부르카투 칸, 조르칼	40~42연
검은 용해	1532	위구르	부카江	43~44연
검은 뱀해	1533	우량칸	항가이 칸 너머	45연
		낭기야드	大同	46~47연
푸른 말해 ~푸른 양해	1534 ~1535	위구르	青海의 구르발진 [三角城]	48연
붉은 원숭이해	1536	키타드	이르가이 城 [寧夏鎮城]	49연
붉은 닭해	1537	키타드	니구차 城 [平虜城]	50~51연
노란 개해	1538	우량칸	항가이 칸 너머	52~55연
-	1539/1540	키타드	다르한 城	60연
흰 소해	1541	낭기야드	아바가 城	61연
		우량칸	-	62연
		낭기야드	량감 城 [蘭州]	63연
-	1542/1543	위구르	케를 하야 모든	65연
		시라 위구르	울란 무렌의 바얀 니구	66~67연
푸른 용해 ~푸른 말해 <sup>18)</sup>	1544 ~1545	우량칸	-	73연
-	1550	키타드	시라 탈라 [黃榆溝]	74~75연
		키타드	大明 황제의 城 [北京]	76연
		키타드	長城 바깥	78연
흰 돼지해	1551	키타드	-	79~81연
-	?	키타드	수부르가투 城 [雙 塔堡], 불롱기 르江 [疏勒河]	82~83연
붉은 뱀해	1557	키타드	-	86~87연
말해	1558	위구르, 시라 위구르	싱홀라 너머	88~89연

18) 제73연의 푸른 말해(甲午年, 1534)는 푸른 용해(甲辰年, 1544)의 이듬해인 푸른 뱀해(乙巳年, 1545)로 보아야 할 것이다. 森川哲雄, 『『アルタン・ハーン伝』の研究』, 124쪽, 주70-③.

연도		교전국	지명 [比定]	출처
동물曆	西曆			
-	?	오이라드	잘라만 칸, 바얀 하라	90연
		올레드, 바투드	쿠케이 칸	92~94연
-	1567	키타드	시자우 [山西 石州]	98연
노란 용해	1568	오이라드	우다 투툼	99~100연
쇠 말해	1570	키타드	니구차 城 [平虜城]	105~106연
			大明 황족의 울란 게르	109~110연

〈표 1〉에 따르면 알탄은 우량칸을 상대로 여섯 차례, 위구르·시라 위구르를 상대로 네 차례, 오이라드를 상대로 두 차례 출정하였으며, 나머지는 키타드·낭기야드<sup>19)</sup>, 즉 명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알탄은 1531년부터 1542년 군 빌릭이 사망할 때까지 형과 함께 해마다 원정을 나갔으며, 그 이후에도 우익 몽골의 실질적 지도자로 군사 작전을 주도하였다. 거듭된 정복전의 성공으로 알탄은 동쪽으로는 遼東에서 서쪽으로는 감숙과 청해에 이르는 지역을 호령하기에 이르렀다.

대의 원정을 통해서 알탄은 동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양의 노획물을 획득하였다. 『알탄 칸전』에서 노획물은 몽골어로 tal[a]γ-a 또는 olja라고 기록되어 있다. talγ-a~talaγ-a는 ‘빼앗다’, ‘몰수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어근 tala-에 명사파생접미사 -γ-a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로 ‘약탈품’을 뜻하며, olja는 ‘얻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어근 ol-에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파생접미사 -ja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로 ‘포로’, ‘수익’ 등을 뜻한다.<sup>20)</sup> 기본적으로는

19) 키타드(kitad)와 낭기야드(nanggiyad)는 각각 金 치하의 북중국과 南宋 치하의 남중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몽골 제국 시기에도 북중국과 남중국의 구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알탄 칸전』에서는 키타드와 낭기야드가 별다른 차이 없이 모두 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가 전쟁으로 빼앗은 물건을, 후자가 전쟁에서 획득한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알탄 칸전』에서는 tal[a]γ-a olja(제40, 50, 80연)나 olja talay-a(제61, 75연)처럼 두 단어를 나란히 쓰기도 하는 등 양자간에 엄밀한 구별 없이 모두 노획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

알탄이 대외 원정을 통해 획득한 노획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알탄 칸전』의 대외 원정 기사는 대개 정복 후에 많은 양의 노획을 얻어 무사히 돌아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어 상세한 품목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획물에는 단순히 물건뿐 아니라 가축이나 사람도 포함되었다. 1538년 좌·우의 몽골 연합군은 우량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굴복시킨 자들을 처벌하거나 포로로 잡아 각자 제 것으로 삼고 집집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였다.<sup>21)</sup> 또 『알탄 칸전』 제82~83연에 따르면 알탄은 疏勒河 일대를 공략하고 북속해 온 기타드인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를 수레에 실어 데리고 오는데, 그 대열이 울란 무렌에서 長城에 다다를 정도였다고 한다.<sup>22)</sup>

1557년 알탄의 對明 원정과 관련하여 『알탄 칸전』 제86연은 성곽과 촌락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명 측 기록

20) Ferdinand D. Lessing ed.,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pp. 771b, 610a; 니콜라스 보베, 유원수 옮김,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1992, 86, 89쪽.

21)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24쪽. 이 구절은 테무진이 메르키드에 납치된 부르테를 구출하고 메르키드를 궤멸시킨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몽골 비사』 제112절과 대응시켜 볼 수 있다. “품을 만한 것들은/ 품어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 집에서 부릴 만한 것들은/ 자신의 가내 노비로 만들어 버렸다”(저자 미상, 유원수 역주, 『몽골 비사』, 사계절, 2004, 78쪽). 이에 따라 주룽가는 『알탄 칸전』에서 여섯 만호가 우량칸 만호를 제압한 뒤, “품에 안을 부녀자”와 “집에서 부릴 노비”를 노획한 것으로 보았다. 珠榮嘎, 『阿勒坦汗傳』, 39쪽.

2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30쪽. 주룽가는 울란 무렌(ulayan mören)을 오늘날 窟野河로, 케렘(kerem)을 寧河邊의 長城으로 보았다. 珠榮嘎, 『阿勒坦汗傳』, 54~55쪽, 주80-①, ②.

을 통해서 이 가운데 가축도 다량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력무공록』에 따르면 가정 36년(1557)에 알탄은 산서 일대를 세 차례 침범하였는데, 구월에는 팔천여 명을 죽이고 말·노새·소·나귀 만여 필을 약탈하였다고 한다.<sup>23)</sup> 1567년에도 알탄은 長城을 넘어 산서 지방을 공격하였는데, 『알탄 칸전』 제98연에서는 알탄의 군대가 성을 점령한 뒤, “수없이 많은 금·은·재물·여자·아이들을 노획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4)</sup> 이로부터 노획물 가운데는 가축과 포로로 잡힌 사람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알탄이 피정복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공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탄 칸전』에서 공물은 몽골어로 alba라고 나온다. alba(n)는 1389년 편찬된 『華夷譯語』(甲種本)에서 ‘差發’로 옮겨진 바 있으며, 일반적으로 ‘貢納’를 뜻한다.<sup>25)</sup> 『알탄 칸전』에는 공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납공 관련 기사를 보면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알탄 칸전』 제66연에는 알탄이 감숙·청해 일대로 원정을 떠났을 때, 위구르인들이 알탄에게 복속 의사를 표하며 공물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sup>26)</sup> 또한 1542~1543년 경 興安嶺 山陽에서 駐牧하던 우지예드의 수령 앙케 칭상이 일족을 거느

23) 瞿九思, 『萬曆武功錄』卷7, 「俺答列傳」中 (薄音湖, 王雄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4,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7, 69쪽).

24)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580쪽 [fol. 12b8-11], “Čaγ ügei altan mönggün ed aγurasun em-e köbegüd-i oljalγad/ Čeneju ülü bolqu yeke talγ-a aburad esen tügel baγubai//”. 주룽가는 『明史』 『韃靼傳』 隆慶元年條를 근거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1567년, 『알탄 칸전』에 기록된 지명 시자우(šijau)를 石州(오늘날 山西省 離石縣城)로 추정하였다. 珠榮嘎, 『阿勒坦汗傳』, 62쪽, 주95-②.

25) 栗林均, 『華夷譯語(甲種本)の研究』, 京都: 松香堂書店, 2019, 170쪽.

2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26쪽.

리고 알탄에게 복속해오자 알탄이 이들을 공물을 바치는 屬民(albatu)으로 삼았다.<sup>27)</sup> 이로부터 공납이 정치적 臣屬을 나타내는 상징물로도 기능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알탄은 원정 이후 상대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알탄 칸 전』에서 징세는 몽골어로 sang tatal[a]γ-a라고 기록되어 있다. sang tatal[a]γ-a에서 sang은 倉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地稅를 뜻하며,<sup>28)</sup> tatal γ-a~tatalay-a는 ‘잡아당기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어근 tatala-에 명사 파생접미사 -γ-a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로 ‘징수’를 뜻한다. 『알탄 칸 전』에 따르면 알탄은 1533년 제2차 大同兵變에 개입하였을 때 대동성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다고 한다.<sup>29)</sup> 또한 1558년에는 위구르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킨 뒤 시라 위구르인에게서 세금을 모아서 거두었다.<sup>30)</sup> 그러나 공물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몇 차례에 걸쳐 어떤 형태로 징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알탄이 대외 원정을 통해 거두어들이던 노획물이나 공물·세금 등은 어떻게 쓰였을까. 우선은 원정에 동참한 우익 몽골의 노안들에게 분배되었다. 알탄은 군 빌릭 메르겐 지농 사후에 우익 몽골군을 이끌고 떠난 첫 원정에서 위구르의 부라하이 타이시를 굴복시키고 나서, 그 속민들을 용시에부 만호의 수령이자 조카인 다이칭 노안에게 恩賜하였다.<sup>31)</sup> 이후에도 알탄은 자신에게 복속해 온 우지예드의 앙케 칭상의 속민들을 자기 동생이자 하라친을 지배하던 바이스칼 쿤둘렌 칸에게 은사하고, 그 밖의

27)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28쪽.

28) 설재환, 「몽골제국에서 賦稅의 시행과 그 帝國的 체계 이해를 위한 試論」, 『東洋史學研究』 139, 2017, 188쪽.

29)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22쪽.

30)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32쪽.

31)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26쪽.

동생과 조카·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sup>32)</sup> 이처럼 알탄은 군사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원정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일족들에게 각자의 몫으로 분배함으로써 우익 몽골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알탄은 명 변경에 군사적 압력을 가해 ‘通貢互市’로 대표되는 경제적 이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유목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경민을 초원 지역 안에 정착시켜 촌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sup>33)</sup> 1551년 白蓮教徒를 비롯한 漢人들이 알탄에게 투항해오자, 알탄은 이들을 향도로 삼아 명으로 출정하여 墩臺와 성벽을 허물고 매년 많은 양의 노획물을 취하였다.<sup>34)</sup> 알탄은 명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주해 온 백련교도뿐만 아니라, 명에서 붙잡아 온 포로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越境한 한인들을 大同鎮 너머 豐州灘, 즉 투메드 평원에 모여 살게 하였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초원의 정주 취락지를 ‘바이싱(baišing, 板升)’이라 불렀는데, 『알탄 칸전』 제85연에는 1557년 알탄이 바이싱을 건설하게 했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섯 탑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덟 대바이싱을 짓게 했으며  
 각종 곡물과 과실을 심게 하고  
 진귀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몽골의 땅에  
 심기를 기도한 사정은 그러하였다.<sup>35)</sup>

3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28쪽; 珠榮嘎, 『阿勒坦汗傳』, 47쪽, 주69-①.

33)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184쪽.

34)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29~130쪽.

35)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577쪽 [fol. 11a4-90], “Tabun sub-uray-a-tu ekilen naiman yeke baišing bayıřulju/ Tariyan tömüsün olan ür-e jïmis-i tariřulju/ Tängsuř amtatan idegen-i mongγol-un γařar-a/ Tariju sedügsen uçir šiltayan inu teyimü bülüge//”.

이처럼 알탄은 포로로 끌려오거나 자발적으로 투항해온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이싱을 건설하고, 농민들에게 농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유목민이 농경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온 사례는 일찍부터 있었다. 특히 내몽골 동부지역에서는 그곳의 풍토에 적합하고 재배하는 데 큰 수고가 들지 않는 기장 등을 재배하는 형태로 “유목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 농경”을 행하여 온 바 있었다.<sup>36)</sup> 그러나 내몽골 서부에서 “각종 곡물과 과실”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광경은 16세기 중엽 알탄 칸 시기에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때 재배된 곡물과 과실의 품종은 『알탄 칸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북로풍속』의 「耕獵」 항목에서 16세기 후반 몽골의 농경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는 “지금 諸夷의 耕種을 보건대 우리 변방의 그것과 그다지 서로 다르지 않다. 농구는 소가 있고 쟁기가 있으며, 종자는 보리가 있고 조가 있고 콩이 있고 기장이 있다. 이들은 전래된 지 이미 오래이며, 근래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오직 오이·박·가지·갓·파·부추류는 곧 款貢 이래 갖가지 함께 갖춘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sup>37)</sup> 이에 따르면 우익 몽골에서는 일찍이 농경을 행하고 있었으며, 알탄이 명조와 화약을 맺은 이후로는 명으로부터 각종 채소를 들여와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앞에서 인용한 『알탄 칸전』 제85연은 시기적으로 ‘용경화의’ 보다 앞서지만, 여기서 말하는 “각종 곡물과 과실”은 『북로풍속』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자 및 채소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력무공록』에 따르면 1570년대 초 豐州에서 1만 頃의 토지가 경작

36) 내몽골 동부지역의 몽골 유목민의 농경인 ‘나무 타리아(namuy tariy-a)’에 관해서는 吉田順一, 「モンゴル人の農耕」, 『內陸アジア史研究』 31, 2016 참조.

37) 蕭大亨, 『北虜風俗』, 「耕獵」(『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2, 243쪽), “今觀諸夷耕種, 與我塞下不甚相遠. 其耕具有牛, 有犁. 其種子有麥, 有穀, 有豆, 有黍. 此等傳來已久, 非始於近日. 惟瓜, 瓠, 茄, 芥, 葱, 韭之類, 則自款貢以來, 種種俱備.”

되었으며, 大小바이싱에는 한인이 5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sup>38)</sup> ‘庚戌의 變’ 이후 1551년 개설된 馬市가 불과 1년 만에 중단된 뒤로 1571년 재개 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한인의 집단노동과 개발로 바이싱의 농업은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발달하였다.<sup>39)</sup>

또한 알탄은 1565년과 1566년 투메드 평원에 성을 쌓고 중국식 殿閣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한인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었다.<sup>40)</sup> 『알탄 칸전』에 따르면 알탄은 1572년 옛 카안 울루스의 수도였던 大都를 본떠서 카라구나 칸[大青山] 남쪽, 카툰 무렌[黃河]의 요지에 후흐호트<sup>41)</sup>를 건설하였다고 한다.<sup>42)</sup> 이로써 후흐호트는 명에 빼앗긴 대도와 한동안 오이라드가 점령하였던 카라코룸을 대신하여, 알탄을 수장으로 하는 투메드 몽골의 수도이자 동유라시아의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경제적으로도 후흐호트는 명과 교역 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몽골 지역으로 물자를 재분배하는 상품의 집산지로 성장하였다.<sup>43)</sup> 후흐호트야말로 알탄이 1571년 까지 전개한 대외 원정을 통해 획득한 부와 노동력이 집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8) 瞿九思, 『萬曆武功錄』 卷8, 「俺答列傳」 下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4, 79, 82쪽).

39) 민경준, 「16세기 明蒙 변경의 몽골 漢人」, 『역사와 세계』 36, 2009, 75쪽.

40) 瞿九思, 『萬曆武功錄』 卷7, 「俺答列傳」 中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4, 71~72쪽).

41) 몽골어 ‘후흐(köke)’는 기본적으로 ‘푸른’을 뜻하나, 몽골인들이 신성시하는 ‘영원한 하늘(möngke tngri)’을 상징하기도 한다. 몽골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들을 ‘푸른 몽골(köke mongγol)’이라 일컬었다. Paul Hyer, “An Historical Sketch of Köke-Khota City Capital of Inner Mongolia,” *Central Asiatic Journal*, Vol. 26, No. 1/2, 1982, p. 57.

4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46쪽.

43) Isabelle Charleux, “The Khan’s City: Kökeqota (Höhhöt) and the Role of a Capital City in Mongolian State Formation,” *Imperial Statecraft: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h–Twentieth Centuries*, David Sneath ed., Bellingham, WA: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06, p. 193.



### Ⅲ. 사신 파견과 교역품

알탄은 우량칸·위구르·오이라드·명을 상대로 대외 원정을 벌임으로써 정복자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사신 파견을 통해 외교적 협상을 벌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571년 명과 화약을 맺기까지 『알탄 칸전』에 나오는 주변국으로의 사신 파견 기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알탄 칸전』에 나오는 사신 파견 記事 (1571년 이전)

연도		파견국	사신명	출처
동물曆	西曆			
-	1550	키타드	아두치	77~78년
-	?	모굴 칸국	우이징 자이상	91년
-	?	오이라드	자야가치 다리자, 벨게 자야가치	95~97년
쇠 말해	1570	키타드	우이징 자이상, 토구치 타이시 등 5인	108~109년
		키타드	아두사	111년
		키타드	우이징 자이상, 토구치, 아두사	116년
흰 양해	1571	키타드	-	119~126년

먼저, 알탄이 모굴 칸국으로 사신을 파견한 사례부터 살펴보자. 14세기 중반 차가타이 울루스의 후신으로 天山 북방의 모굴리스탄 초원에서 형성되었던 모굴 칸국은 15세기 말~16세기 초 내부 분열과 우즈벱·키르기즈의 남하로 인해 모굴리스탄 초원을 상실하고 동·서 칸家로 양분되었다.<sup>44)</sup> 이 가운데 투르판을 근거지로 삼은 동부 칸家の 만수르는 東進하여 1517년 본거를 하미로 옮긴 뒤 沙州를 장악하고 肅州와 甘州까지 위

44) 김호동, 「15-16세기 中央아시아 新遊牧集團들의 動向: 前期 모굴汗國의 崩壞와 관련하여」, 『러시아연구』 3, 1993, 116~117쪽.

협하였다.<sup>45)</sup>

1558년 알탄은 감숙·청해 방면의 위구르 잔당을 복속시킨 이후, 하미 동북부의 잘라만 칸으로 출정하여 오이라드를 공략하였다. 이 무렵 알탄이 투르판 지역으로 사신을 보낸 사실을 『알탄 칸전』 제91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白帽의 샤 칸에게 옛 典例·道理·故事를,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지닌 우이쟁 자이상을 사신으로 보내어  
 차가타이 아카 이래로 친족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한없이 기뻐하며 아르구막 말, 금강석 등 공물을 준 것이었다.<sup>46)</sup>

‘白帽(čayan malay-a)’는 무슬림이 머리에 두르는 터번(纏頭)을 가리키며, 샤 칸은 만수르의 맏아들로 그의 뒤를 이어 모굴 칸국 동부의 칸으로 즉위하였다. 이때 알탄이 사신으로 파견한 우이쟁 자이상이라는 인물은 명과 티베트로도 여러 차례 사신으로 파견될 정도로 알탄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다.

알탄이 샤 칸에게 우이쟁 자이상을 보내서 “옛 전례·도리·고사”와 “차가타이 아카<sup>47)</sup> 이래로 친족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차가타이의 후손

45) 김호동, 「이슬람勢力の 東進과 하미王國의 沒落」, 『震檀學報』 76, 1991, 140쪽.  
 4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578쪽 [fol. 11b14-20], “Čayan malay-a-yin ša qayan-dur erten-ü üliger yosu tuγuǰi/ Čaylaši ügei erdem-tü üjeng vasang-i elči ilegeǰü/ Čayatai aq-a-ača inayši törül törügšen-i ügülegsен-dür/ Čay ügei bayasču arɣumaγ morin almas erdeni tatalγ-a öggügšen bülüge//”. 여기서 üjeng vasang은 üjeng jayisang으로 보아야 한다.  
 47) 몽골어 ‘아카(aq-a)’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형’이지만,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敬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몽골비사』에서는 취해(1228) 우구테이가 칸으로 추대된 사실을 기록한 제269절 이후로는 차가타이에게 ‘아카’라는 말을 붙여서 존경의 뜻

인 샤 칸과 툴루이의 후손인 알탄이 서로 칭기스 일족이라는 연대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은 모굴 칸국의 동부 칸家가 서부 칸家에 흡수된 뒤인 1578~1579년경 알탄이 압둘 카림 칸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칭기스 칸에게서 갈라진 친족”임을 상기시키고 압둘 카림 칸이 알탄 측에 “政을 和合함시다”라고 화답하는 『알탄 칸전』 제251연에도 등장한다.<sup>48)</sup> 이처럼 알탄은 천산 남부의 오아시스 지대를 지배하던 무슬림 군주에게 사신을 보내 칭기스 일족 간의 유대를 확인함으로써 모굴 칸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알탄 칸전』에서는 모굴 칸국에서 알탄 측에 보낸 물품을 ‘공물(tatal[a]r-a)’로 기록하고 있으나, 칭기스 일족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 만큼 실상은 ‘예물’에 가까웠을 것이다. 모굴 칸국에서 우익 몽골로 유입된 물품을 살펴보면, 샤 칸이 보낸 품목으로는 아르구막 말과 금강석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아르구막(aryumar)은 투르크어 arqun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흐무드 카쉬가리가 1074년 편찬한 『투르크어 사전』에 따르면 이는 “야생 수말과 길들인 암말을 교배시켜 태어난 말”로 가장 빠른 경주마라고 한다.<sup>49)</sup> 『高昌館雜字』 「鳥獸門」에는 아르구막이 ‘阿兒苦麻’로 음역되며, ‘小西馬’라는 對譯語가 붙어 있어 西域産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50)</sup>

압둘 카림 칸이 알탄에게 보낸 물품으로는 아르구막 말과 금강석에

을 나타내고 있다. 栗林均 編, 『『元朝秘史』モンゴル語漢字音譯·傍譯漢語對照語彙』, 仙台: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9, 103쪽.

48)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71쪽.

49) Robert Dankoff and James Kelly, eds., *Compendium of the Turkic Dialects (Dīwān luyāt at-Tu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inting Office, 1982, p. 136.

50) 『高昌館雜字』 「鳥獸門」 (北京圖書館古籍出版編輯組,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6,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430쪽).

더해 토무착 말과 거세마, 키치르 낙타 등이 열거된다. 먼저, 토무착 말(tomučar mori)은 “西域産의 잘 먹이고 훌륭한 말”을 뜻하는 투르크어 topčaq에서 유래하였다.<sup>51)</sup> 『高昌館雜字』 「鳥獸門」에는 ‘토비착(tobičar, 土必察)’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大西馬’라는 대역어가 붙어 있어 아르구막 말보다 큰 서역산 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52)</sup> 다음으로 키치르 낙타(kičir temegen)는 몽골에서 볼 수 있는 쌍봉낙타가 아니라 아라비아산 단봉낙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53)</sup> 이 두 종류의 가축은 『몽골비사』 제 274절에서 우구데이가 바그다드로 원정을 떠난 초르마간에게 해마다 바치도록 한 공물 가운데 “목이 길고 다리가 긴 토비차오드 말들(tobiča’ud)”, “다오시 키치도드 낙타들(da’usi kičidud)”에 각각 대응한다.<sup>54)</sup>

명에서도 일찍부터 아라비아산 말을 구하기 위해 메카[天方]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례로 정덕제가 番使로부터 좋은 말이 메카에서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 방물을 요구한 결과, 정덕 13년(1581) 메카의 통치자가 말과 낙타 및 보석 등을 보내오기도 하였다.<sup>55)</sup> 명과 마찬가지로 알탄은 모굴 칸국과의 교류를 통해 몽골말에 비해 다리가 길고 덩치가 큰 아라비아산의 駿馬와 몽골고원에 서식하지 않는 단봉낙타 등을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익 몽골로 들여올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알탄이 오이라드로 사신을 파견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오이

51)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2, Wiesbaden: Franz Steiner, 1965, p. 601.

52) 『高昌館雜字』 「鳥獸門」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6, 430쪽).

53) Igor de Rachewiltz,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2, Leiden: Brill, 2004, p. 1008.

54) 유원수 역주, 『몽골 비사』, 289쪽. 『몽골비사』에서 ‘토비차오드 말들’에 대응하는 傍譯漢語는 ‘西馬每’(每는 복수 접미사)이다. 栗林均, 『元朝秘史』モンゴル語, 468쪽.

55) 『明史』(張廷玉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4) 卷332, 「西域傳」 4, ‘天方’, 8622쪽.

라드를 상대로 한 알탄의 원정은 1558년 감숙·청해 일대의 위구르에 대한 정복을 완수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오이라드 원정을 위해 잘라만 칸에 주둔할 때, 알탄은 오이라드의 키르구드·호이드의 수령인 지게켄 아카와 잘라만 투루이에게 자야가치 다리자와 벨게 자야가치 두 사람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이 사건을 『알탄 칸전』 제96~97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영명하고 거룩하신 알탄 칸, 우리의 군주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며, ‘옛 관습에 따라 사돈을 맺자’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였을 때,

키르구드의 토순 우를룩, 투글라르 아칼라쿠 두 명을 필두로 하는 사신들  
로 하여금

[알탄이] 요구하는 자신의 딸을 바치고 사돈을 맺은 까닭은 그러하였다.

그의 딸은 제 아들인 쿨루게치 타이시에게 은사하고

오랫동안 떨어졌던 울루스를 평안케 하고 政事를 상의하며 화합하고서

賞賜로 그의 사신들을 기쁘게 하여 돌려보내고

매우 평안하고 기쁘게 제집으로 돌아와 말에서 내렸다.<sup>56)</sup>

5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579~580쪽 [fol. 12a17-12b4], “Gegen uqayatu boyda altan qayan ejen manu bidan-dur/ Kereglejü erten-ü yosurur quda bolulčay-a kemen jarlır boluysan-dur/ Kirγud-un tosun örlüg tıylar aqalaqu qoyar-i ekilegöl-ün elčis-iyer/ Keregleküi öber-ün ökin-iyen jöngge ergüjü quda boluysan uçir inu teyimü bülüge// Ökin inu köbegün-degen külügeči tayişi-du soyurqaju öggüd/ Önide qaračaysan ulus-i amaralduju törü kelelčeju nayiraldıyad/ Öglige soyurqal-iyar elčis-i inu bayasqaju qariγuluγad/ Ülemji maši engke amurulang bayasqulang-iyar ger-tegen qariju barubai//”.

오이라드의 지게켄 아카는 알탄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딸을 바치고 사돈 관계를 맺은 후, 1568년 알탄이 알타이 방면으로 출정하자, 자기 자식과 백성들을 이끌고 알탄에게 복속해왔다.<sup>57)</sup> 알탄이 오이라드 수령들에게 사돈 맺기를 요구하며 “옛 관습에 따라”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일찍이 칭기스 칸에게 복속하여 혼인을 통해 駙馬를 배출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력에 대해서는 『알탄 칸전』 제103~104면에서 상술하고 있다.

그로부터 돌아가서 말에서 내리자마자 오이라드 울루스의  
 지게켄 아카를 비롯한 노안들에게,  
 승고하고 거룩하신 칭기스 칸이 키투카 베키를 타이시로 삼은 선례에 따라,  
 그러한 까닭에 [지게켄 아카의] 큰아들인 우바다이에게  
 타이시라는 칭호를 하사하였다.  
 [키투카 베키의] 동생들에게 홀로이칸과 체치겐 둘을 주었던 선례에 따라,

보살의 생을 타고난 알탄 칸은 자신의 자손들인  
 만주시리와 숨부르 아바카이 둘을  
 부케구데이와 에케이 칭상 둘에게 은사하여 부마로 삼았다.  
 거룩하신 칭기스 칸이 이날치와 투룰치 둘을 부마로 삼았던 선례에 따라,  
 사려 깊게 제 자손들을 은사하고 자식처럼 보살피어 속민으로 삼은  
 사정은 그러하였다.<sup>58)</sup>

57)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34~135쪽.

58)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581~582쪽 [fol. 13a13-13b1],  
 “Tendeče qariju baγurad sača oyirad ulus-un jigeken aq-a terigüten noyad-tur inu/ Degedü boyda činggis qayan kituq-a beki-yi tayiši bolu ysan-u yosuγar/ Tere uçir-tur yeke köbegün-dür inu ubadai-dur tayiši čola soyurqabai/ Degüner-tür inu qoluyıqan čečigen qoyari öggügsen-ü yosuγar// Bodisung törül-ki-tü altan qayan öber-ün üres-iyen manjuši-

키투카 베키는 『몽골비사』 제239절에서 1207년 주치가 ‘숲의 사람들’을 상대로 출정하였을 때 먼저 귀순하였던 오이라드의 수령으로 나오는 쿠투카 베키에 해당한다. 칭기스 칸은 자신을 알현하러 온 그의 아들 이날치와 투룰치에게 각각 자신의 딸 체치겐(체체이겐)과 주치의 딸 홀로이칸을 주어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sup>59)</sup> 또한 『集史』에 따르면 쿠투카 베키의 딸은 칭기스 칸의 손자인 몽케에게 부인으로 주어졌다고 한다.<sup>60)</sup> 즉 알탄은 오이라드 출신의 여성을 며느리로 들이고, 자신의 딸을 오이라드 측에 은사하여 그 지배층을 자신의 부마로 삼음으로써 칭기스 칸 때 맺어진 오이라드와의 사돈 관계를 이어 나갔다.

『몽골비사』에는 13세기 초 ‘숲의 사람들’이 칭기스 칸을 알현하고 사돈 관계를 맺을 때 바친 공물로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 담비가 나와 있다. 16세기 후반 알탄과 오이라드 측 사이에 사신이 오갈 때도 상당수의 공물과 혼수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알탄 칸전』은 알탄이 지계켄 아카의 딸을 데려온 사신들에게 ‘賞賜(öglige soyurqal)’를 주었다고만 할 뿐, 그 상세한 품목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표 2〉에 의하면 1571년 이전 알탄이 가장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한 상

---

ri sümbür abaqai qoyar/ Bökegüdei ekei činggis qoyar-tu soyurqaju kürgen bolɣaba/ Boyda činggis qayan inalči törülči qoyar-i kürgen bolɣaysan-u yosuyar/ Bolčimtai-a üres-iyen soyurqaju ürečilen asaraju albatu bolɣaysan šiltayan teyimü bülüge//”

- 59) 유원수 역주, 『몽골 비사』, 236~237쪽. 『알탄 칸전』 제103연에서는 체치겐과 홀로이칸을 키투카 베키의 동생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몽골비사』와 『집사』에서 이날치와 투룰치는 모두 쿠투카 베키(키투카 베키)의 아들로 나온다. 한편, 『집사』는 『몽골비사』와 달리 치체겐(체체이겐)을 투랄치(투룰치)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시드 앳 딘,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181쪽.
- 60) 라시드 앳 딘,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181쪽. 몽케에게 주어진 쿠투카 베키의 딸 이름이 『집사』 「부족지」에서는 오굴쿠이미시(Oğülqūymish)로 기록되어 있으나, 『집사』 「몽케 카안紀」에는 오굴투트미시(Öğültütmish)로 나온다. 라시드 앳 딘,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306쪽.

대국은 키타드, 즉 명이였다. 알탄 측과 명 사이의 사신 왕래에 관한 『알탄 칸전』의 기사 가운데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1550년 이후의 일이다. 『알탄 칸전』 제77~78년에 따르면, ‘경술의 변’ 직후 명 황제는 양구착이라는 사신을 알탄에게 보내서 “교역품, 칭호, 賞(sang)을 교환하고 왕래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전하였다. 이에 응하여 알탄은 아두치<sup>61)</sup> 라는 사신을 명에 파견하고, 자신은 우익 세 만호를 이끌고 장성 밖으로 출병하여 세금을 거두어 돌아왔다고 한다.<sup>62)</sup> 이는 ‘경술의 변’ 이듬해인 1551년 大同·宣府·延綏·寧夏에서 馬市가 개설된 사건을 가리킨다. 『알탄 칸전』에서는 우익 세 만호가 명에서 ‘징세(sang tataly-a)’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로부터 우익 몽골에서는 마시에서 행해진 교역도 이 세금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明世宗實錄』에 따르면 1551년 6월 대동의 鎮羌堡에서 마시가 개설되어 알탄 측에서 가져온 말 2,700여 필이 매매되었고, 선부의 新開口堡에서는 우익 몽골의 노안들이 2천여 필의 말을 매각하였다.<sup>64)</sup> 몽골의 말은 대개 명의 견직물과 교환되었는데, 알탄의 아들 토포는 몽골인 가운데 말을 팔 수 있는 부자는 열에 두셋에 불과하므로 빈자들의 소·양도 콩·조와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시의 일을 맡아보던 兵部左侍郎 史道는 소 한 마리를 조 다섯 말, 양 한 마리를 조 한 말과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였으나, 마시에서 거래된 곡식이 몽골로 도망친 한인들의 식량이 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소·양과 곡식의 교환은 허락되지 않았다.<sup>65)</sup>

61) 알탄의 사신으로 여러 차례 명으로 가서 교섭을 하였다. 嘉靖 31년(1552) 大同에서 피살되었다. 명대 漢籍에는 ‘丫頭智’로 나온다. 珠榮嘎, 『阿勒坦汗傳』, 51쪽, 주75-①.

6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29쪽.

63)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278쪽, 주78-③.

64) 『明世宗實錄』 卷372, 嘉靖三十年 四月 丙戌; 『明世宗實錄』 卷373, 嘉靖三十年 五月 庚戌.



결국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우익 몽골과 이를 제한하려는 명조 간에 분규가 발생하면서 1551년 개설된 마시는 불과 일 년 만에 폐쇄되었다.

그 후 약 20년간 단절되었던 알탄과 명조의 사신 왕래는 1570년 명으로 망명한 알탄의 손자 다이칭 에제이를 송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되었다. 같은 해 팔월, 알탄이 니구차 城, 즉 산서의 平虜城을 포위하고 그의 말아들 생계 두렁이 “大明 황족의 붉은 게르”<sup>66)</sup>를 불태우자 명 측에서는 알탄에게 다급히 화의를 청하였다.<sup>67)</sup> 이후 알탄과 명조 사이에 여러 차례 사신이 오간 끝에 다이칭 에제이와 월경 한인의 두목들을 서로 송환하고 양측이 화약을 맺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1571년 알탄과 명 사이에 체결된 ‘용경화의’의 내용을 『알탄 칸전』 제120~122연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키타드의 왕 술렝(王崇古)을 비롯한 大小 관원들은 안에 모여,  
 키타드의 大明 皇帝가 몽골의 알탄 칸에게 수이왕(順義王)이라는  
 중한 칭호를 바쳤고,  
 힘써 정치를 보좌한 노얀들에게 두둘리쿠 잔중 칭호를 하사했으며,  
 티 없이 大政을 공고히 한 노얀들과 대신들에게 각각 칭호를 주고,  
  
 金印과 金冊을 내어주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 등 재물들과,  
 맹수인 호랑이·표범, 담비·수달 [가죽] 및 여러 종류의 물건과,

65) 瞿九思, 『萬曆武功錄』 卷7, 「俺答列傳」 中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4, 60쪽).

66) “大明 황족의 붉은 게르(dayiming qayan-u törül-ün ulayan ger)”에 대해서 주룽가는 『萬曆武功錄』 卷8 「黃台吉列傳」 隆慶四年 十月條를 근거로 代府의 묘지에 세워져 있는 殿堂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 바 있으나, 확증할 수 없다. 珠榮嘎, 『阿勒坦汗傳』, 69쪽, 주106-④.

67)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36~137쪽.

막대한 蟒緞(manglyr)·錦緞(kemerlig) 등 각종 의복을 주었다.

칸을 위시한 세 만호의 노안들이 무엇이든 생각한 것을 언급하였을 때,  
경탄할 만한 칭호와 賞,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를,  
만족할 때까지, 마음에 들만한 무엇이든 원하던 것을  
내어 주었다. 해마다 달마다 끊임없이.<sup>68)</sup>

이 사건은 『만력무공록』 「俺答列傳」 隆慶 5년 오월조에는 “알탄이 사신을 보내 表文을 받들어 臣이라 일컬으며, 명마 30필을 바쳤다. 上께서 建極殿에 거둥하시어 그것을 받으셨다. 太史로 하여금 金冊을 받들게 하여 알탄을 順義王으로 봉하셨다”라고 나온다.<sup>69)</sup> 『북로풍속』 「貢市」 항목에서도 “金印을 하사하여 알탄을 順義王으로 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70)</sup> 용경제가 알탄을 順義王에 봉하였다는 명 측의 기록과 달리, 『알

68)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586~587쪽 [fol. 15b12-16a8], “Kitad-un vang süleng terigüten yeke bay-a noyad erü dotur-a quraju/ Kitad-un dayiming qayan mongγol-un altan qayan-dur süi vang keme-kü kündü čola ergüjü/ Kičiyejü törü-dür tusalaysan noyad-tur duduliqu janjung čola soyurqaju/ Kkir ügei yeke törü-yi bekileldügsen noyad sayid-tur tusburi čola ner-e ögčü// Altan tamaγ-a altatu šir-a biçiy γary aju öggüged/ Asuru maši altan mönggün terigüten ed aγurasun-nuγud ba/ Ariyatan bars irbis bulaγ-a qaliyu kiged eldeb jüil-ten ba/ Aγui yeke manglyr kemerliy [->kemerlig] terigüten eldeb jüil-tü degel qubčasun-i ögbei// Qayan ekilen γurban tümen-ü noyad alimad sanaγsan-i duradu γsan-dur/ Γ ayiqamšiy nere šang toγulaju ülü bolqu olan jüil-i/ Qantala sedkil-dür oruqu metü ali tayalaysan-i/ Γ arγaju ögbei on sara-dur taural ügei tusbüri//”.

69) 瞿九思, 『萬曆武功錄』 卷8, 「俺答列傳」 下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4, 89쪽), “俺答遣使奉表稱臣, 貢名馬三十四. 上御建極殿受之. 使太史奉金冊, 封俺答爲順義王.”

70) 蕭大亨, 『北虜風俗』, 「貢市」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2, 251쪽), “賜金印, 封

탄 칸전』에서는 대명 황제가 알탄 칸에게 順義王이라는 “중한 칭호를 바쳤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용경화의’를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또한 『만력무공록』에서는 우익 세 만호의 노안들에게 제수한 관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알탄의 동생 바투르(쿤둘렌 칸)와 맏아들 흥타이지(생계 두령)에게 제수한 都督同知가 『알탄 칸전』의 ‘두둘리쿠 잔중(duduliqu janjung)’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1)</sup>

다음으로 『알탄 칸전』에서 용경제가 알탄에게 준 물품 가운데 의복으로 언급된 mangluy과 kemerlig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mangluy~mangnuy은 18세기 말에 편찬된 『御製五體清文鑑』에는 ‘蟒緞’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五體清文鑑譯解』에서는 “각색 練絲를 합쳐 金絲를 넣어 짠 용무늬의 緞子”라고 풀이하고 있다.<sup>72)</sup> kemerlig은 『오체청문감』에 ‘錦’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오체청문감역해』에서는 “각종 빛깔의 練絲로 가는 무늬를 짜낸 천”이라고 풀이하고 있다.<sup>73)</sup> 『明穆宗實錄』 용경 5년 삼월 己丑條에서 용경제가 알탄을 순의왕으로 봉하면서 상으로 내렸다고 하는 大紅五綵紵絲蟒衣와 綵緞이 각각 『알탄 칸전』의 mangluy과 kemerlig에 대응할 것이다.<sup>74)</sup> 1551년 宣大督撫 蘇祐는 알탄이 명에 ‘求貢’하는 네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명의 관작과 의복을 얻어 몽골 諸部に 뽐내고자 하는 알탄의 욕망을 꼽은 바 있는데,<sup>75)</sup> 1571년 명조로부터 받은 칭호와 금인 및 수많은 재물, 蟒緞·錦緞을 비롯한 각종 의복은 몽골 내에서 알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俺答爲順義王”.

71) 珠榮嘎, 『阿勒坦汗傳』, 74쪽, 주117-④.

72) 田村實造 他編, 『五體清文鑑譯解』上,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內陸アジア研究所, 1966, 671쪽 [11861].

73) 田村實造 他, 『五體清文鑑譯解』上, 672쪽 [11881].

74) 『明穆宗實錄』卷55, 隆慶五年 三月 己丑.

75) 蘇祐, 「接報夷情疏」, 『明經世文編』(北京: 中華書局, 1962) 卷216, 2257쪽.

한편, ‘용경화의’를 계기로 우익 세 만호와 명 사이에는 마시가 다시 개설되었다. 『알탄 칸전』 제123연에 따르면 오르도스는 두르벨진 城, 투메드는 차간 城, 하라친·용시에부는 미양城이 명과의 교역 창구로 지정되었다.<sup>76)</sup> 『만력무공록』에 따르면 알탄은 용경 5년 오월 28일(1571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유월 14일(7월 5일)까지 得勝堡에서 열린 官市에서 말 1,370필을 팔고 은 10,540여 냡을 얻었으며, 민간 상인을 상대로 한 私市에서는 말·나귀·노새·소·양 6,784두를 팔았다. 1571년 득승보를 포함하여 네 곳에서 마시가 열리자 우익 몽골은 관사에서 말 7,030필을 팔고 은 56,470냥을 얻었으며, 사시에서는 말·나귀·노새·소·양 21,380두를 팔았다.<sup>77)</sup> 말의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는 있겠으나 1571년 관사에서 명과 우익 몽골이 거래한 말 가격은 한 마리당 평균 은 8냥으로, 명 측은 말을 전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우익 몽골 측에서도 많은 액수의 은을 입수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sup>78)</sup> 마시를 통한 교역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이후로는 알탄이 명을 침략하는 일이 잦아들면서 명 입장에서는 잇단 兵禍가 그쳤으며, 알탄은 “태평의 大政”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sup>79)</sup>

76) 주룽가는 두르벨진 城, 차간 城, 미양城을 각각 靈州城, 陽和, 宣鎮에 비정하였다.

珠榮嘎, 『阿勒坦汗傳』, 75~76쪽, 주120-①②③.

77) 瞿九思, 『萬曆武功錄』 卷8, 「俺答列傳」 下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4, 93~94쪽).

78) Henry Serruys,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75, pp. 263~264.

79)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41~142쪽.

80) Henry Serruys, “Early Lamaism in Mongolia,” *Oriens Extremus*, Vol. 10, No. 2, 1963, pp. 181~216.

81) H. E. Richardson, “The Karma-Pa Sect. A Historical Not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90, No. 3-4, 1958, p. 150.

#### IV. 불교 의례와 공양물

14세기 이후로도 티베트불교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몽골인들 사이에서 잔존하고 있었다.<sup>80)</sup> 15세기 후반 몽골에서 까르마파 法主에게 예물을 보낸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중앙티베트와의 왕래도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sup>81)</sup> 그러나 16세기 후반 티베트불교가 몽골인 사이에서 부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알탄을 비롯한 우익 몽골 지배층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알탄 칸전』에 따르면 알탄이 티베트 승려와 처음 접촉한 것은 위구르의 잔여 세력을 복속시키기 위해 청해로 원정을 떠난 1558년이었다. 이때 티베트 상인단과 맞닥뜨린 알탄은 그들을 제압한 뒤 그중 라마 천 명의 목숨을 살려주어 놓아 보냈다고 한다.<sup>82)</sup> 이후로도 우익 몽골이 西征을 전개함에 따라 티베트 승려와의 접촉도 더욱 빈번해졌다. 1566년 알탄의 從孫이자 오르도스의 유력자였던 후룩타이 세첸 흥타이지(1540~1586)는 청해 방면으로 원정하여 세 명의 라마를 데리고 돌아온 뒤로 佛法을 존숭하였다고 한다.<sup>83)</sup>

알탄이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시기는 명과 화약을 맺은 1571년이었다. 이 무렵 아싱 라마<sup>84)</sup>가 알탄에게 와서 三寶·六字眞言·八齋戒에 관하여 설법하였는데, 『알탄 칸전』에서는 이 사건을 무려 열 일곱 연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sup>85)</sup> 그 뒤로도 아싱 라마는

8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31~132쪽.

83) 岡田英弘 譯注, 『蒙古源流』, 東京: 刀水書房, 2004, 257~259쪽.

84) 아싱 라마(Mong. ašing lam-a; Tib. a seng bla ma, 1557~1636)는 티베트 압도(a mdo) 지방의 삼라우(samlau)氏 출신으로 본명은 세랍(shes rab)이다. 중앙티베트의 대뿡寺에서 수학한 뒤 五臺山으로 갔다가 투메드로 향하여 알탄과 만났다.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315~316쪽, 주131-② 참조.

알탄에게 쿠빌라이와 팍빠의 선례를 좇아 승려들에게 보시를 베풀고 겐룩파의 高僧 쇠남 가초를 초청하여 불상과 불경을 몽골로 모셔 오도록 권유하였다.<sup>86)</sup>

알탄은 우선 명에 사신을 보내 金字番經과 티베트 승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sup>87)</sup> 이를 ‘오랑캐의 성정을 교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명 측에서는 1573년 알탄에게 티베트 승려와 함께 金字經 세 부, 舊金字經 네 부, 黑字經 다섯 부를 전달하였다.<sup>88)</sup>

1574년 알탄과 그의 부인 증겐 카툼은 쇠남 가초를 초청하기 위해 딱룽 낭소, 우이쟁 자이상, 다운 키야, 봄부 산당을 비롯한 사절단을 티베트로 파견하였다. 이때 사절단은 알탄의 서한과 예물(beleq)에 더해 쇠남 가초의 환심을 살만한 금·은 등의 보물과 무수히 많은 종류의 보시 물품을 가져갔다.<sup>89)</sup> 이들은 티베트로 향하는 도중에 청해 호반의 참치얄(오늘날 青海省 共和縣)에 들러 알탄의 명으로 세 울루스, 즉 몽골인·한인·티베트인에게 지시하여 佛殿을 짓기 시작하였다.<sup>90)</sup> 열 달 뒤 티베트 라싸에 도착한 알탄의 사절단은 조강 사원에서 쇠남 가초를 알현하고 만달라와 예물을 바치며 몽골에 佛法을 널리 퍼뜨려 주기를 청하였다.<sup>91)</sup>

1576년 오월, 쇠남 가초는 딱룽 낭소와 다운 키야를 알탄에게 돌려보내서 참치얄의 불전에서 만날 뜻을 전하면서, 불상과 불경, 金剛結을 비

85)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42~146쪽.

8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46~149쪽.

87) 『明穆宗實錄』 卷65, 隆慶六年 正月 丙子.

88) 『明神宗實錄』 卷11, 萬曆元年 三月 己亥; 『明神宗實錄』 卷20, 萬曆元年 四月 丁巳.

89)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49~150쪽.

90) ‘참치얄의 佛殿(čabčiyal-un süm-e)’은 1577년 알탄의 요청으로 만력제에게서 仰華寺라는 寺額을 받았다. 이후 1591년 병부상서 鄭洛이 이끄는 명군에 의해 불태워졌다.

91)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50~151쪽.

릇한 각종 보물을 알탄에게 보냈다.<sup>92)</sup> 알탄은 쇠남 가초를 맞이하기 위해 재차 딱롱 낭소와 다운 키야를 사신으로 보내면서 서한과 예물에 더하여 “백 냥(šijir)<sup>93)</sup> 으로 주조한 金印과 섬세하게 짠 의복, 금·은·재물 다수”를 쇠남 가초에게 보냈다.<sup>94)</sup>

1576년 십일월에 출발한 알탄의 영접사는 이듬해 유월에 도착하여 쇠남 가초에게 알탄의 서한과 예물을 바친 뒤, 茶를 비롯한 보시 바라밀을 僧伽에 베풀었다.<sup>95)</sup> 『알탄 칸전』에서 차는 ‘집회의 茶(čiyulγan-u čai)’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대량의 차 보시’를 뜻하는 티베트어 ‘망자(mang ja)’를 몽골어로 의역한 것으로 티베트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manja로 표기하기도 한다. 1330년 忽思慧가 몽골 황실의 요리를 정리하여 편찬한 『飲膳正要』 「諸般湯煎」에 실려있는, 酥油를 넣어 함께 달이는 ‘西番茶’가 여기에 해당한다.<sup>96)</sup> 몽골 제국 시기 쿠빌라이가 팍빠에게 대량의 차를 보시한 이래, 몽골 황실을 중심으로 티베트 승려에게 차를 보시하던 전통이 16세기 후반 알탄이 쇠남 가초에게 차를 보시함으로써 부활한 것이다.<sup>97)</sup> 당시 티베트와 명조 사이에 茶馬 교역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9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53쪽.

93) 무게의 단위로서 몽골어 šijir는 위구르어 sitir, 페르시아어 sir, 한어 兩에 각각 대응하며, 몽골 제국 시기 1냥은 약 40g에 해당한다.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のウイグル商人: ソグド商人とオルトク商人のあいだ』, 『岩波講座世界歴史 11: 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 9-16世紀』, 樺山紘一 他 編, 東京: 岩波書店, 1997, 99~100쪽.

94)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54쪽.

95)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55~156쪽.

96) 忽思慧, 최덕경 역주, 『음선정요 역주』, 세창출판사, 2021, 205~206쪽.

97) 최소영,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 195~196쪽. 17세기부터는 여러 몽골 집단들이 대규모 순례단을 이끌고 라싸로 가서 대량의 차를 바치기도 하였다. 18세기 준가르의 망자[熬茶] 순례에 대해서는 Peter C. Perdue, “Tea, Cloth, Gold, and Religion: Manchu Sources on Trade Missions From Mongolia to Tibet,” *Late Imperial China*, Vol. 36, No. 2, 2015 참조.

때, 알탄의 사절단이 티베트에서 환영받는 차를 승려들이 모인 법회에 제공함으로써 우익 몽골이 대량의 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98)</sup>

티베트 내에서의 논란 끝에 쇠남 가초가 라싸를 출발하여 청해 지방에 다다르자, 오르도스·투메드·응시예부의 노안들은 세 차례에 걸쳐 그를 영접하러 나왔다. 『알탄 칸전』에서는 이때 우익 세 만호의 노안들, 대신들, 관원들은 금·은 만달라와 황금 안장과 굴레를 얹은 말과 재물 등 많은 종류의 예물을 바쳐 쇠남 가초를 환대하였다고 한다.<sup>99)</sup> 『몽골원류』를 저술한 사강 세첸은 쇠남 가초를 영접하였던 오르도스의 후특타이 세첸 흥타이지의 曾孫으로서 당시 쇠남 가초에게 바쳐진 예물로 각종 보석과 금·은, 카티(kati)·툰디(tundi)·蟒緞(mangluy)·킵(kiib)·토르가(tory-a), 金銀코뚜레를 한 낙타들·보석으로 장식된 금 안장을 얹은 말들을 열거하고 있다.<sup>100)</sup> 여기서 카티는 티베트어 kha thi<sup>101)</sup>를 몽골어로 음역한 것으로, 『오체청문감』에 따르면 앞서 살펴보았던 錦緞(kemerlig)에 대응한다. 툰디도 티베트어 thun thi를 음역한 것으로 역시 비단의 한 종류이다.<sup>102)</sup> 킵은 『몽골비사』 제248절과 『華夷譯語』 「衣服門」에서 모두 熟絹에 대응하며, 이와 발음이 거의 같은 ‘깁’도 한국어에서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무늬 없는 비단”을 가리킨다.<sup>103)</sup> 토르가는 『몽골비사』 제135,

98) 김성수,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명청시대 동유아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명청사학회 하계연토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2022, 82~83쪽.

99)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158~159쪽.

100) 岡田英弘, 『蒙古源流』, 270쪽.

101) 티베트어 ‘카티(kha thi)’는 주로 동전 무늬가 있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된 비단이다. kha ti 혹은 ga the라고도 표기하며 한어 ‘縵絲’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21쪽.

102) 티베트 사료에서 thon ti, thon te, thon thi, mthon thi 등 다양하게 표기되며, 한어 ‘緞縹’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22쪽.



238연에서 각각 紵絲와 段匹에 대응하며, 이 또한 비단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sup>104)</sup> 우익 몽골의 노안들이 환영의 뜻으로 쇠남 가초에게 바쳤던 카티와 튄디를 비롯한 각종 견직물은 명으로부터 얻은 물품에 해당한다.

戊寅年 오월 15일(1578년 6월 19일) 알탄과 쇠남 가초는 청해의 동쪽, 참치알 불전의 서쪽에서 만나 성대한 法宴을 벌였다. 알탄은 施主로서 應供僧인 쇠남 가초에게 많은 보시를 베풀었다. 그 보시 품목은 『쇠남 가초 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알탄 칸과 중겐 카툰은 쇠남 가초에게 은 오백 냥으로 만든 만달라, 보석으로 가득 채운 금 사발, 白·金·赤·綠·靑色 비단 각 스무 필씩, 보석으로 만든 안장과 굴레로 장식한 백마 열 필을 비롯한 말 백 필, 오색 비단 열 필, 은 천 냥, 綿布를 바쳤다고 한다.<sup>105)</sup>

쇠남 가초와 만난 뒤 얼마 안 있어 알탄은 병을 얻었는데, 쇠남 가초가 장수를 기원하는 灌頂을 내리고 불경을 외며 재액을 물리치는 의식을 행하자 알탄의 몸에서 열이 가라앉았다.<sup>106)</sup> 이에 알탄은 신심을 더욱 두터이 하고 대량의 보시를 베풀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알탄 칸전』은 이때 알탄과 중겐 카툰이 쇠남 가초를 비롯한 티베트 승려에게 바친 공양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칸과 카툰께서 백 냥으로 만든 만달라를,  
천 냥으로 만든 경이로운 은술 등을,  
옥·수정, 각종 보석들, 금·은, 다수의 의복을,

103) 栗林均, 『『元朝秘史』モンゴル語』, 270쪽; 栗林均, 『華夷譯語(甲種本)の研究』, 78쪽;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두산동아, 2013, 385쪽.

104) 栗林均, 『『元朝秘史』モンゴル語』, 471쪽.

105)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陳慶英, 馬連龍 譯, 『一世-四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234쪽.

106)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62쪽.

알맞은 금 안장·굴레를 얹은 아르구막·토무착 말 등을,

다수의 낙타·말·노새·소·양, 무수히 많은 것을,

가려내어, 백여, 천여, 만여를,

자못 요긴한 각종 공양 바라밀을 五色 울루스<sup>107)</sup> 로 하여금

바치고, 무릇 부모를 비롯한 一切有情을 복된 쪽으로 回向하게

하였다.<sup>108)</sup>

여기에 등장하는 공양물 가운데 낙타·말·소·양 등의 가축은 몽골인이 길러오던 가축이겠지만, 금·은과 같은 귀금속과 의복은 주로 명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물품이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르구막·토무착 말은 천산 남부의 모굴 칸국을 통해 들여온 아라비아산 명마에 해당한다. 이처럼 명과 모굴 칸국에서 획득한 물자가 우익 몽골을 거쳐 티베트에 공양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우익 몽골이 16세기 후반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 유통 과정에서 중개 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7) 칭기스 칸이 통치한 五方の 나라들을 상징한다. 푸른 몽골(köke mongγol)을 중심으로 대개 붉은 키타드(ulayan kitad), 흰 솔롱고스(čayan solongros), 검은 티베트(qar-a töbed), 노란 사르타굴(šir-a sartayul)을 가리킨다.

108)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612~613쪽 [fol. 28b11-29a3], “Qayan qatun jaγun šijir-iyer egüdügsen altan mandal kiged-i/ Γay-iqamšiy mingγan šijir-iyer egüdügsen mönggün toy-a terigüten-i/ Qas bolur eldeb jüil erdenis altan mönggün olan toyutan qubčisun-i/ Qabiy-a-tu altan emegel qaǰayar toquju arγumay tomučay morin terigüten-i// Olan toyutan temegen morin lausa üker qonin toyulaši ügei olan-i/ Ončalaǰu jaγuyad mingγayad tümen toyatan-i/ Oγuyata keregleküi jüil büri takil baramid-i tabun öngge ulus-iyar/ Ergüju yerü ečige eke terigüten qamuy amitan-i qutuy-un jüg irügelgebei//”.

알탄을 위시한 우익 세 만호의 노얀들은 자제 108명을 출가시켜 戒를 받도록 하는 한편, 쇠남 가초를 비롯한 티베트의 고승들과 칭호와 인장을 교환하였다. 『알탄 칸전』 제226, 228연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칸을 위시한 모든 施主들이 함께 모든 것을 아는 달라이 라마에게  
경탄할 만한 ‘持金剛’이자 선하고 빛나며 복덕 있는 바다’라고 선양하며  
金印을 바쳤다.

빠어난 퉁코르의 化身인 라마에게 ‘만주시리(文殊師利) 후룩투’ 칭호를  
바치고,

틀림없이 쇠남 닥빠의 화신인 라마에게 ‘마이다리(彌勒) 후룩투’ 칭호를  
바쳤다.<sup>109)</sup>

성스러운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세 존자들은 투시예투 알탄 세첸 칸에게  
모든 ‘梵天’이자 커다란 힘을 지닌 轉輪聖王 法王’ 칭호를 바치고 銀印을  
하사하였다.

연분 있는 노얀추 중겐 카툰에게 多羅菩薩의 화신인 多羅尊 칭호를 하사  
하였다.

세 만호의 노얀들에게 차례대로 각각 칭호를 준 것을 한테 모아  
적었다.<sup>110)</sup>

109)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614~615쪽 [fol. 29b20~30a4],  
“Qayan ekilen qamuγ ejed bügüdeger qamuγ-i medegči dalai lam-a-dur/ ʾayiqamšiy včir-a dar-a sayin čoy-tu buyan-tu dalai kemen aldaršiyulju altan tamaγ-a ergübei/ ʾabiy-a-tu stongkor-un qubilyan lam-a-dur manjuširi qutuγ-tu čola ergübe/ Qalayar sodnam graybayin qubilyan lam-a-dur mayidari qutuγ-tu čola ergübei/”.

110)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615쪽 [fol. 30a11~20], “Qutu

『쇠남 가초전』에서는 알탄이 쇠남 가초에게 바친 칭호를 “달라이 라마 바즈라다라, 즉 遍主 持金剛”으로, 쇠남 가초가 알탄에게 준 칭호를 “法王 大梵天”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알탄이 쇠남 가초에게 바친 金印에 대해서는 “금 백 냥으로 만든 인장은 五爪龍으로 장식되었고, 겔무늬에 ‘持金剛 달라이 라마의 인장’이라고 새로운 몽골 문자(팍빠문)로 되어 있다. 印盒은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sup>111)</sup> 다만, 쇠남 가초가 알탄에게 준 銀印에 대해서는 『쇠남 가초전』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칭호와 인장 교환을 통해 우익 몽골의 세속 수령들과 겔룩파의 고승들은 시주-응공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이후 알탄은 라싸의 조강 사원에 있는 釋尊像에 공양물을 바쳐야 한다는 쇠남 가초, 즉 달라이 라마의 말에 따라 천 냥으로 만달라를 조성하고 많은 종류의 보시 바라밀을 아싱 라마에게 주어 중앙티베트로 보냈다.<sup>112)</sup> 이때 겔룩파의 三大 사원인 세라·대봉·간댄寺에 차를 보시하도록 하고 각 지방의 僧俗 영수들에게도 예물을 전달하였다.<sup>113)</sup> 이로써 알탄은 티베트불교의 시주로서 중앙티베트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알탄은 달라이 라마에게 몽골 제국 시기 쿠빌라이가 팍빠에게 받았던 喜金剛의 灌頂을 자신에게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성취하였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알탄은 쿠빌라이가 팍빠에게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

*γ-tu dalai lam-a ekilen γurban qutuγ-tan tušiyatu [-tūšiyetü] altan sečen qayan-dur/ Qotala esrün yeke küčün-tü čakravarti nom-un qayan čola ergüjü mönggün tamaγ-a soyurqabai/ Qubitu noyanču jönggen qatun-i dara bodisung-yin qubilyan ary-a dara čola soyurq-a-bai/ I urban tümen-ü noyad-tur ded ded-iyer tus büri čola nere öggügsen-ü quriyan bičibei//”.*

111)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238쪽.

11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67쪽.

113)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238쪽.

로 달라이 라마에게 금·은으로 조성한 만달라, 일곱 가지 보물과 여덟 가지 공양을 비롯한 각종 보물을 바쳤다.<sup>114)</sup> 여기서 “일곱 가지 보물과 여덟 가지 공양(doluy an erdeni naiman takil)”은 須彌山과 四大洲 주위에 輪王七寶(rgyal srid sna bdun)와 八吉祥徽(bkra shis rtags brgyad)를 배치한 금속제의 입체 만달라를 가리킨다.<sup>115)</sup> 전륜성왕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다는 運왕칠보는 金輪寶·神珠寶·玉女寶·主藏臣寶·白象寶·紺馬寶·將軍寶를 가리키며,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덟 가지 緣起物로는 吉祥結·妙蓮·寶傘·右旋海螺·金輪·勝利幢·寶瓶·金魚가 꼽힌다.<sup>116)</sup> 이처럼 알탄은 관정의 종류와 공양물을 선택하는 데도 典故를 따름으로써 자신이 쿠빌라이의 계승자임을 표방하고 전륜성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잡치알 회견 이후 알탄은 달라이 라마를 후호호트로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달라이 라마는 압도와 캄 방면 시주들의 초청을 받아 巡錫에 나섰다. 달라이 라마는 알탄에게 몽골 땅에 사원을 창건하여 釋尊像을 세우고 자신을 대신하여 만주시리 후툽투<sup>117)</sup>를 초청하라고 조언하였다.<sup>118)</sup> 1579년 후호호트로 돌아온 알탄은 달라이 라마의 말에 따라 불상을 조성하고, 만주시리 후툽투를 비롯한 四部僧을 초청하여 開眼 공양을 베풀었다. 이때의 정황을 『알탄 칸전』 제270~271연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14)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67~170쪽.

115) 石濱裕美子, 『『アルタン・ハーン傳』に見る17世紀モンゴルの歴史認識について』, 『チベット佛教世界の歴史的研究』, 東京: 東方書店, 2012, 49쪽.

116) 張怡蓀 主編, 『藏漢大辭典』, 北京: 民族出版社, 1993, 84, 558쪽.

117) 만주시리 후툽투 율뎐 가초(yon tan rgya mtsho, 1557~1587)에 관해서는 若松寬, 「西寧トンコル・フトクトの事績」, 『立命館文學』 418-421, 1980, 490~493쪽 참조.

118)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72~173쪽.

모든 것을 아는 달라이 라마의 말씀에 따라  
 경이로운 釋尊의 像을 세우기 위해 각종 보석을 쌓고  
 빼어난 네팔의 장인에게 주어 [석존상이] 생겨나 완성된 뒤에  
 칸과 카툼을 비롯한 전체 大을루스가 모두 다

각종 보석과 금·은 다량을,  
 안장·굴레를 엮은 아르구막·토무착 말을 비롯한 준마들을,  
 한없이 많은 수의 가축을 강과 들판이 가득 찰 때까지 모으게 하여  
 殊勝하고 커다란 복덕을 헤아릴 수 없이 바쳤다.<sup>119)</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석존상의 주조는 네팔의 장인에게 맡겨졌다. 이처럼 네팔의 장인에게 불상을 조성하도록 하는 관행은 일찍이 토번 제국 시기 송 쯤감보 때 라싸의 툴낭寺(15세기 이후에는 조강으로 불림)에 十一面觀音菩薩像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sup>120)</sup> 이후 몽골 제국 시기 팍빠가 對南宋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마하칼라(Mahākāla) 像을 조성할 때도 네팔 출신의 阿尼哥로 하여금 그 護法神像을 제작하도록 한 바 있다.<sup>121)</sup>

119)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 譯注』, 627쪽 [36a13-24], “Qamuγ-i medegči dalai lam-a-yin jarliγ-un yosuγar/ Γ ayiqamšir juu šikamuni-yin bey-e bayirulqu-yin tula eldeb erdenis-i čoyčalaju/ Γ abiy-a-tu balbu-yin uran-dur öggüged egüdcü dayusuγsan-u qoyina/ Qaγan qatun terigüten qamuγ yeke ulus qotula bügüdeger// Eldeb jüil erdeni altan mönggün olan toγatan-i/ Emegel qaǰaγar toquju arγumay tomučay morin terigüten kölged-i/ Eng ügei olan toγ-a-tan mal-i čoyčalaγulju γoul tala dügürtele/ Erkin yeke buyan-i čaγlaši ügei ergüjü bür-ün//”.

120) 石濱裕美子, 『『アルタン・ハーン傳』 に見る17世紀モンゴルの歴史認識』, 56~58쪽.

121)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東洋史學研究』 155, 2021, 164쪽.

알탄 사후에 후흐호트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석존상에 금관을 만들어 씌우게 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네팔의 장인에게 그 제작을 맡겼다.<sup>122)</sup>

석존상을 모시기 위해 후흐호트에 건립한 불전이 완성되자 알탄은 명 측에 요청하여 1581년 萬曆帝에게서 弘慈寺라는 寺額을 받았다.<sup>123)</sup> 『쇠남 가초전』에 따르면 1586년 달라이 라마는 후흐호트의 銀佛에 다라니를 腹藏하고 開光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로부터 후흐호트의 석존상이 은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sup>124)</sup> 이러한 까닭에 이 사찰은 일명 銀佛寺라고도 불렸는데, 불상을 주조하는 데 사용된 금·은은 대부분 명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후흐호트의 석존상이 라싸의 조강 사원에 모셔진 석존상과 다름없이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부터 후흐호트의 은불이 라싸의 조강 사원에 모셔진 석존상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25)</sup>

알탄이 우익 몽골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건설한 후흐호트에 티베트 고승을 초청하고 조강 사원을 본떠 석존상을 모신 불전을 창건함으로써 몽골에서 불교가 흥룡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알탄은 피정복민에게서 거두는 공납과 명과의 교역으로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티베트 승려에게 바치는 보시 물품이나 佛事를 후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처럼 알탄이 “世間과 佛法의 두 가지 政”, 즉 善政과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펴야 한다는 ‘두 가지 규범’<sup>126)</sup>에 입각한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16

122)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87쪽.

123) 瞿九思, 『萬曆武功錄』卷8, 「俺答列傳」下(『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4, 109쪽).  
弘慈寺는 崇德 5년(1640) 청 태종 홍타이지의 명으로 중수된 뒤 無量寺(čaylaši ügei süm-e)로 개칭되었으며, 오늘날에는 大召(yeke juu)라고 불린다.

124) 五世達賴喇嘛, 『三世達賴喇嘛傳』, 247쪽.

125)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87쪽.

126) 알탄 칸 시기 ‘두 가지 규범’의 용례 및 그 사상에 대해서는 石濱裕美子, 「チベット・モンゴル・滿洲の政治の場で共有された「佛教政治」思想」, 『チベット佛

세기 동유라시아의 물품 유통에서 우익 몽골이 중심축을 이룰 수 있었다.

## V. 맺음말

알탄 칸은 후호호트에 불전을 창건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辛巳年 십이월 19일(1582년 1월 13일) 75세로 세상을 떠났다.<sup>127)</sup> 16세기를 관통하는 그의 생애는 1571년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알탄은 17살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우익 몽골군을 이끌고 대외 원정에 나서 북쪽으로는 우량칸을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위구르를 정복하였다. 1542년 우익 몽골의 수장이었던 형 메르겐 지논이 사망한 뒤로도 알탄은 왕성한 군사 활동을 전개하여 서북쪽으로는 오이라트, 남동쪽으로는 명의 북변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알탄은 대외 원정을 통해 획득한 포로와 전리품을 자식뿐 아니라 형제와 조카에게도 분배함으로써 우익 몽골 내에서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정복지에서 거두는 공물 및 세금과 더불어, 장성을 넘어 도망쳐 온 한인 노동력을 동원한 경작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알탄은 투메드 평원에 후호호트를 건설하고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다.

알탄은 대외 원정을 전개하는 한편, 때로는 주변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구르의 잔당을 복속시키기 위해 西征을 거듭한 결과, 알탄은 천산 이남에 있던 모굴 칸국과 직접 교류할 수

---

『教世界の歴史的硏究』, 206~211쪽 참조.  
127) 吉田順一 他, 『『アルタン=ハーン傳』譯注』, 177쪽.



있게 되었다. 알탄은 차가타이 울루스의 후신인 모굴 칸국의 지배자들과 사신을 교환하며 칭기스 일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아라비아산 명마와 금강석으로 대표되는 서역의 물품을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알탄은 칭기스 칸 때부터 오이라드와 통혼해왔던 전통에 따라 오이라드 출신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오이라드 수령을 사위로 삼았다.

명을 상대로 알탄은 일찍부터 ‘통공호시’를 요구하였으나, 알탄이 명에서 도망친 한인들을 자기 세력 내로 포섭하는 것을 경계해오던 명조는 이를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경술의 변’ 이후 1551년 개설되었던 마시도 몽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던 명조에 의해 불과 일 년 만에 파탄이 나고 말았다. 명으로 망명한 알탄의 손자와 월경 한인의 두목들을 송환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1571년 ‘융경 화의’가 성립하였다. 이로써 명은 알탄을 비롯한 우익 몽골의 수령들에게 관작을 주고 ‘통공호시’를 허락하였다. 변경에 개설된 마시에서 우익 몽골의 지배층은 말값으로 받은 은으로 비단 등 사치품을 구매하였다.

알탄이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명과 화약을 맺은 1571년의 일이었다. 아싱 라마의 권유에 따라 알탄은 티베트로 사신을 파견하여 겐룩파의 고승이었던 쇠남 가초를 몽골 땅으로 초청하였다. 1578년 알탄은 찰치알에서 쇠남 가초와 만나 달라이 라마 칭호를 바치고 자신은 전륜성왕으로 인정받았다. 초청부터 영접 및 회견까지 알탄을 비롯한 우익 몽골의 수령들은 수차례에 걸쳐 막대한 양의 공양물을 티베트 승려에게 보시하였다. 이 가운데는 명에서 사들인 차와 모굴 칸국에서 들여온 명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후호호트로 돌아온 뒤로도 알탄은 쇠남 가초의 말에 따라 불상을 주조하고 불전을 건립하며 승가에 대량의 보시를 베푸는 등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하였다. 여기에 소요되었던 금·은 등 귀금속과 견직물은 명에서 賞으로 받거나 교역을 통해 획득한 것이었다.

알탄은 청장년기에 대외 원정에 매진하여 정복자로 명성을 떨치며 약

탈과 징세,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노년에 불교에 귀의한 뒤로 알탄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승려들에게 대량의 공양물을 보시하는 大施主로 변모하였다. 『알탄 칸전』에는 그 품목과 수량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명이나 티베트 측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마시에서 우익 몽골의 말과 명의 은이 교환되고, 은을 매개로 명에서 사들인 차와 견직물, 각종 귀금속이 티베트로 유입되는 물품 유통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1571년 우익 몽골과 명의 화약 체결과 뒤이은 알탄의 불교 귀의는 단순히 우익 몽골과 명 또는 티베트와의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16세기 동유라시아 세계의 물품 유통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2.07.14. 투고 / 2022.07.27. 심사완료 / 2022.08.20. 게재확정)

[Abstract]

### **Distribution of Goods in the Sixteenth Century Western Tümen in the Biography of Altan Khan**

Choi, Jub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goods in the sixteenth century Western Tümen by focusing on the biography of Altan Khan. The life of Altan Khan (1508–1582), the leader of the Tümed Mongols during the course of the sixteenth century, can be represented by three major events: military expeditions, dispatches of envoys, and a conversion to Buddhism. Altan launched military expeditions against the Uriyangkhan, Uyighur, Oyirad, and Ming together with his brothers from his youth. After his elder brother's death in 1542, Altan became the most powerful ruler over the Three Western Tümen by not only leading military campaigns, but also distributing the spoils and prisoners. He also collected tributes and taxes from the conquered people. Encouraging the Chinese defectors to engage in agriculture and build Höhhot on the Tümed Plain, Altan established an economic base.

As his power expanded, Altan made an effort to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ending envoys to the Moghul Khanate, Altan reaffirmed the solidarity of the Chinggisid and imported Arabic steeds and diamonds. He restored matrimonial relations with the Oyirad originating from the reign of Chinggis Khan. After the Sino–Mongol Peace Accord of 1571, the lords of the Three Western

Tümen could exchange horse for silver or silk at the Horse Fairs.

Following the arrival of Asing Lama in 1571, Altan converted to Buddhism and sent delegations to Central Tibet for the purpose of inviting a Geluk hierarch, Sönam Gyatso. In 1578, a meeting was held between Altan and Sönam Gyatso at Chabchiyal, where they established the patron–priest relationship modeled on that of Khubilai and Phagpa. Altan made innumerable offerings, such as tea, silk, and a variety of precious metals including gold and silver obtained from the Ming, as well as Arabic steeds imported from the Moghul Khanate to Tibetan lamas. Since 1571 when the Sino–Mongol Peace Accord was reached and Altan converted to Buddhism, goods imported from the Ming and the Mogul Khanate flowed into Tibet through Western Tümen. In conclusion, Three Western Tümen headed by Altan Kha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in the sixteenth century Eastern Eurasia.

□ Keyword

Altan Khan, Western Tümen, Höhhot, Sino-Mongol Peace Accord of 1571, Horse Fairs, Sönam Gyatso, offerings

[참고문헌]

1. 사료

『高昌館雜字』(北京圖書館古籍出版編輯組,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6,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明經世文編』(陳子龍等 編輯, 北京: 中華書局, 1962).

『明史』(張廷玉等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明實錄』(국사편찬위원회 명실록·청실록 데이터베이스).

瞿九思. 『萬曆武功錄』(薄音湖, 王雄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  
編』4,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7).

蕭大亨. 『北虜風俗』(薄音湖, 王雄 編輯點校,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2,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라시드 앳 단.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저자 미상. 유원수 역주. 『몽골 비사』, 사계절, 2004.

忽思慧. 최덕경 역주. 『음선정요 역주』, 세창출판사, 2021

岡田英弘 譯注. 『蒙古源流』, 東京: 刀水書房, 2004.

吉田順一 共訳注. 『『アルタン=ハーン伝』 訳注』, 東京: 風間書房, 1998.

森川哲雄. 『『アルタン=ハーン伝』의 研究』, [福岡]: [九州大学], 1987.

五世達賴喇嘛阿旺洛桑嘉措. 陳慶英, 馬連龍 譯. 『一世-四世達賴喇嘛  
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珠榮嘎(jürüngy-a) 譯注. 『阿勒坦汗傳』,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Elverskog, Johan. *The Jewel Translucent Sūtra: Altan Khan and the*

-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Leiden·Boston: Brill, 2003.
- jürünger-a 校注.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oruşıba*. 北京: 民族出版社, 1984.
- Kollmar-Paulenz, Karénina.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Die Biographie des Altan qayan der Tümed-Mongol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religionspolit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Mongolei und Tibet im ausgehenden 16. Jahrhundert*. Wiesbaden: Harrassowitz, 2001.
- de Rachewiltz, Igor.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2*. Leiden: Brill, 2004.
- Заябаатар, Д. *Чакраварди Алтан Хааны Тууж*. Ү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2006.

## 2. 연구서

-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엮음. 『동유라시아 물품 교류와 지역』. 경인문화사, 2022.
-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두산동아, 2013.
- 보베, 니콜라스. 유원수 옮김,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1992.
-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 薄音湖. 『明代蒙古史論』. 臺北: 蒙藏委員會, 1998.
- 栗林均 編. 『『元朝秘史』モンゴル語漢字音訳・傍訳漢語対照語彙』. 仙台: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9.
- 栗林均. 『華夷譯語(甲種本)の研究』. 京都: 松香堂書店, 2019.

- 石濱裕美子. 『チベット佛教世界の歴史的研究』. 東京: 東方書店, 2012.
- 楊紹猷. 『俺答汗評傳』.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 張怡蓀 主編. 『藏漢大辭典』. 北京: 民族出版社, 1993.
- 田村實造 他編. 『五體清文鑑譯解』 上.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內陸アジア研究所, 1966.
- 井上治. 『ホトクタイ=セチェン=ホンタイジ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2002.

Dankoff, Robert and James Kelly, eds. *Compendium of the Turkic Dialects(Dīwān luyāt at-Tu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inting Office, 1982.

Doerfer, Gerhard.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2*. Wiesbaden: Franz Steiner, 1965.

Lessing, Ferdinand D. ed,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Serruys, Henry. *Trade Relations: The Horse Fair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75.

### 3. 연구논문

김성수. 「16~17세기 내륙아시아의 禮儀와 선물」. 『명청시대 동유라시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명청사학회 하계연토회 및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2022.

김장구. 「대몽골국 성립 이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2022.

- 김호동. 「이슬람勢力的 東進과 하미王國의 沒落」. 『震檀學報』 76, 1991.
- . 「15-16세기 中央아시아 新遊牧集團들의 動向: 前期 모굴汗國의 崩壞와 관련하여」. 『러시아연구』 3, 1993.
- 민경준. 「16세기 明蒙 變경의 몽골 漢人」. 『역사와 세계』 36, 2009.
- 서은미. 「元代 茶 文化의 특징」. 『東洋史學研究』 158, 2022.
- 설배환. 「13~14세기 카안의 부엌과 몽골 風味의 지속과 변화」. 『몽골학』 49, 2017.
- . 「몽골제국에서 賦稅의 시행과 그 帝國的 체계 이해를 위한 試論」. 『東洋史學研究』 139, 2017.
- .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경제·정치 네트워크」.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 조 원. 「明人의 시선에서 본 16세기 漠南몽골 사회의 변화: 〈北虜風俗〉을 중심으로」. 『몽골학』 37, 2014.
- . 「『飲膳正要』와 大元제국 음식문화의 동아시아 전파」. 『歷史學報』 233, 2017.
- . 「원제국 외래 香藥과 카안의 賞賜: 南海海上 생산 香藥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59, 2022.
-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東洋史學研究』 155, 2021.
- .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에 대한 보시와 그 운송 문제 고찰」. 『中央아시아研究』 26-2, 2021.
- 吉田順一. 「モンゴル人の農耕」. 『內陸アジア史研究』 31, 2016.
-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のウイグル商人: ソグド商人とオルトク商人のあいだ」. 『岩波講座世界歴史 11: 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 9-16世紀』. 樺山紘一 他 編, 東京: 岩波書店, 1997.



森川哲雄. 「Barsu boladの事績」. 『歴史學·地理學年報』 12, 福岡, 1988.  
若松寛. 「西寧トンコルーフトクトの事績」. 『立命館文學』 418-421, 1980.  
井上治. 「モンゴルにおける史書の受容と継承について: 『白い歴史』と『蒙古源流』を事例に」. 『モンゴル史研究: 現状と展望』, 早稲田大學モンゴル研究所 編, 吉田順一 監修, 東京: 明石書店, 2011.

Charleux, Isabelle. “The Khan’s City: Kökeqota (Höhhöt) and the Role of a Capital City in Mongolian State Formation.” *Imperial Statecraft: Political Forms and Techniques of Governance in Inner Asia, Sixth–Twentieth Centuries*. David Sneath ed., Bellingham, WA: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06.

Hangin, Gombojab. “The Mongolian Titles *jinong* and *Sigej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00, No. 3, 1980.

Hyer, Paul. “An Historical Sketch of Köke-Khota City Capital of Inner Mongolia.” *Central Asiatic Journal*, Vol. 26, No. 1/2, 1982.

Perdue, Peter C. “Tea, Cloth, Gold, and Religion: Manchu Sources on Trade Missions From Mongolia to Tibet.” *Late Imperial China*, Vol. 36, No. 2, 2015.

Richardson, H. E. “The Karma-Pa Sect. A Historical Not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90, No. 3-4, 1958.

Serruys, Henry. “Early Lamaism in Mongolia.” *Oriens Extremus*, Vol. 10, No. 2, 1963.

